

휴가나온 군인… 승진 자랑하던 딸 애끓는 절규에 전국 곳곳 눈물바다

희생자 사연

하늘의 별이 되기엔 너무도 짧은 나
이의 아까운 생명들을 잃었다.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으로 해
밀тон호텔 인근 골목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로 153명이 사망한 가운데 언론은
희생자들의 애끓는 사연과 함께 안타까
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은 참혹했다.
점점 늘어나는 인파와 좁은 골목으로
밀리는 사람들이 벽에 부딪히거나 휙쓸
려서 경사진 골목에서 사람들이 도미노
처럼 쓰러졌다. 여기저기에서 살려달라
는 비명이 곳곳에서 들렸다는 목격담
들. 이 모든 것이 거짓말 같은 며칠 전
일들이다.

연예인부터 외국인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이들까지 소중한 친구이자 자식
들을 허망하게 생명을 잃은 현장이다.

◆ 흔 천 덮인 시신에 어머니 두 손 감싸

30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한 장례식장.
흰색 승합차량이 무겁게 깔린 밤공기를
가르며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자 유족들
사이에서 통곡이 울려 퍼졌다. 지난 29



핼러윈 데이를 앞둔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대규모 압사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30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국대 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외국인들이 신원확인 후 오열하고 있다. /뉴스스

일 오후 서울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로 숨진 A(24·여)씨의 시신이 흰 천에
덮인 채 승합차에서 내려지자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광주에서 나고 자란 A씨 서울 소재
유병 백화점에 취업했다. 불과 몇 주 전
에는 입사 3개월 만에 승진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가족들은 승진한 딸의 이
야기로 웃음을 피웠다.

아침에 이태원 참사 관련 뉴스를 본
가족은 A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수
화기 너머에서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A씨가 서울 한 병원에安置
되었는데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
이었다. A씨는 흰 천에 덮인 채 아버지
를 맞았다.

희생자 사연 전해지며 안타까움 커져 온·오프라인 곳곳 추모행렬 줄이며 배우, 치어리더 등 유명인도 참변

◆ 영원히 복귀 신고 못한 군인

군 휴가를 나왔다가 영원히 복귀 신
고를 못한 막내아들 사연도 전해지고
있다. 그의 어머니는 연신 전화를 열 번
스무 번을 해도 받지 않는 아들에 애틋
했다. 30일 오전 사망 소식을 받고 오열
을 했다. B씨는 참사 2시간여 전인 전날
오후 8시 30분에도 군 상관에게 유선 보
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 중·고교생 6명과
교사 3명도 숨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
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로 고
등학생 5명, 중학생 1명, 교사 3명이 숨
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31일 이태원 참사 애도문을 내고 “형언
할 수 없이 안타까운 희생을 가슴 깊이

애도한다”라고 밝혔다.

◆ 연예인 희생자도 “믿기지 않아”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에 연예인도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엠넷 오디션 ‘프로듀스 101’ 시즌2 출
신 배우 이지한(24)과 전 LG 트윈스·K
IA 타이거즈 치어리더 김유나(24)도 이
태원 참사로 세상을 떠났다.

이지한 소속사는 그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
다. “이지한이 하늘의 별이 돼 우리 곁
을 떠났다. 비통한 심정”이라며 “갑작스
러운 비보로 인해 깊은 슬픔에 빠진 유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더 이
상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너무 빠르게 우리 곁을 떠나게
된 이지한의 마지막 가는 길을 부디 따
뜻하게 배웅해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김유나의 지인은 전날 인스타그램 스
토리에 김유나 사진을 올리고 “유나야,
그곳에선 더 행복해야 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더 많이 예뻐하고 (사진
많이) 찍어줄 걸. 그 예쁜 아이가…”라
며 안타까워했다. 다른 지인은 “이태원
에서 있었던 일이 너한테까지 일어날
줄은 몰랐다”며 “편한 곳으로 가서 잘
지내길 바란다”라고 애도했다. KIA 치
어리더 정가에도 “유나야 기도할게. 정
말 고마웠어. 마음이 너무 아파”라고 댓글
을 남겨 그녀를 애도했다.

◆ 외국인 말이 안통해 더 애끓어

이번 참사로 숨진 사망자들 가운데
외국인들도 다수 포함되었다. 이번 이
태원에서 발생한 압사사고로 아들을 잃
은 미국인 아버지가 비통한 심정을 표
현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조
지아주 애틀랜타 교외에 사는 스티브
블레시(62)는 이날 한국에서 일어난 비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극적인 뉴스를 접한 뒤 정신 없이 전화
를 걸고 문자를 보내며 아들이 안전한
지 확인하려고 했다. 그는 지인들과 정
부 관리들에게 연락했으며 트위터를 통
해 소식을 접한 사람이 있는지 계속 확
인했다.

블레시 부부는 이날 밤 11시30분께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
화를 받았다. 그의 아들 스티븐이 이태
원 참사 희생자 중 한 명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美, 스리랑카 등 외국인 사망자도 교환학생, 근로자… 사연 제각각 유족 “수억 번을 동시에 찔린 느낌”

블레시는 NYT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억 번을 동시에 찔린 느낌이었다”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무 갑작
이 없이 망연자실하고 동시에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애통함을 표현했다.

스티븐은 지난 8월 한양대 교환학생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 블레시는 국제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은 아들이 동아시
아에서 커리어를 쌓고 싶어 했다고 전
했다.

스티븐은 중간고사를 마치고 친구들
과 함께 이태원의 핼러윈 축제를 갔다
고 한다. 친구 몇 명은 인파를 피해 먼저
빠져나갔지만 스티븐은 그렇지 못했다
고 블레시는 전했다.

블레시는 “나는 사건이 발생하기 30
분 전 ‘밖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조심
해라’는 문자를 보냈지만 아들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국인 희생자는 켄터키대
간호학과 3학년생인 앤 기스케(20)로
확인됐다. 그 역시 교환 학생으로 한국
에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리랑카인 A씨는 한국에서 1년 넘
게 마스크 만드는 일을 해왔다. 그의 부
인은 최근 임신소식도 전해 A씨와의 전
화 연결을 애太子하고 있다. 호주
에서 여행 온 B씨도 동행했던 친구들과
이태원 참사 아비규환 속에 뿔뿔이 흩
어지고 만다. 친구들이 그를 애太子 찾
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지인들은
애끓는 마음으로 실종자 신고를 하고
인근 병원을 찾아다니다 결국 사망 소
식에 비통함으로 무릎을 끊었다.

◆ 정부 애도기간 사망자 20대 가장 많아

정부는 오는 11월 5일까지 국가 애
도 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관공서와 재
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
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

인명 피해는 총 286명으로 집계됐
다. 사망 154명, 부상 132명이다. 부상
자 중에서는 중상 36명, 경상 96명이
다. 사망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 98명,
남성 56명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03
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30명, 10대 11
명, 40대 8명, 50대 1명 순이다.

/최규준 기자 ch9720@metroseoul.co.kr

교육계, 학생·교원 피해파악 등 후속조치 분주

교육부, 심리상담전담팀 구성 서울교육청, 사고수습본부 설치

교육계가 이태원 압사 참사로 희생된
학생·교원 파악 등 후속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청 등은 물론이고
대학가와 교육단체 등도 한마음으로 애
도를 표했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교
육청은 30일 서울교육청내에 ‘긴급 사
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이후 감당해야
될 부분에 대해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고수습본부 차원에서는 합동분향소
를 설치하고, 사망자가 발생한 학교에
대한 애도 심리정서지원을 해나갈 계획
이다.

이날 오후 3시께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
육감은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정
문 주차장 내 설치된 합동분향소를 찾
아 국회를 향하고 명복을 빌었다. 조
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과 교사들이
희생된 데 형언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심폐소생술 같은 안전 교육

이 희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이번 기회에 고민해 보겠다”
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와 지
원청 등을 종동원해 실종자 명단 파악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파악한 명단은 경찰
과 공유해 정확한 사상 규모 파악과 실종
자 신원 확인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현재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해 숨진
학생 사망자는 고등학생 5명, 중학생 1
명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이태원 참
사 관련 초·중·고교생 피해 현황을 집계
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 사망자는 서울
소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 5
명, 중학생 1명으로 총 6명이다. 교사
사망자는 서울, 경기, 울산 소재 학교
근무자로 총 3명이다.

또한 이태원 압사 참사로 숨진 미국
인들은 스무살 동갑내기로 한국에 유학
온 한양대 교환학생으로 알려졌다. 미
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각) 이태원 압

사 참사로 인해 미국인 2명이 숨지고 3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대학가도 피해자 파악에 힘을 모으고
있다. 서울대, 동국대, 중앙대 등 대학
교총 학생회는 SNS를 통해 교내 구성
원 피해상황 집계를 위한 피해 신고 접
수를 안내했다. 각 총학들은 이태원 압
사 참사로 인한 교내 구성원 피해 상황
을 파악해 학교와 후속 조치에 대한 논
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과 더불어 이번
참사에 조의를 표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과 심리상담
전담팀을 구성해 이번 사고로 재학생이
숨진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생
희생자를 위해서도 사상자와 유가족에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일대일로 연결해
지원하고, 해당 대학들과 협력을 통
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국가 애도기간인 오는 5일까지 교육부
와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는 조기·리본
등을 통해 애도에 동참한다. 해당 기간에
는 진행될 행사들은 적절성을 판단해 축
소하거나 취소한다. /신하은 기자 godhe@

게임업계, 핼러윈 이벤트·상품판매 중단

3N 등 추모 동참… 마케팅 자제

대규모 할로윈 참사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게임업계도 기획했던 이벤트와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추모에 동참
하는 분위기다.

3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네슨, 넷마
블, 펠러비스, 카카오게임즈 등 게임업
계 대부분이 그간 준비했던 할로윈 이
벤트,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내 3N(네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이 가장 먼저 추모 동참에 속력을 냈다.
네슨은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V4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 ▲테
일즈위버 등 13종 게임에서 할로윈 이
벤트를 모두 중단했다.

엔씨소프트도 ▲리니지W ▲리니지
M ▲리니지2M ▲아이온 등의 게임에
서 선보인 할로윈 이벤트를 종료하겠다
고 밝혔다.

넷마블 역시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제2의 나라: 크로스월드 ▲세븐나이
츠2 ▲리니지2 레볼루션 ▲블레이드앤
소울 레볼루션 ▲모두의마블 등 10종

게임의 이벤트를 중단했다.

3N 뿐만 아니라 펠러비스도 검은 사
막 이벤트를 종료하고 모바일 내 할로
윈 이벤트 상품 판매를 종료했다. 또 이
후 기획한 유튜브 등 마케팅 활동도 중
단하고 게임별로 이벤트 진행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컴투스는 ▲컴투스프로야구의 핼러
윈 이벤트 종료를 결정했다. 컴투스 관
계자는 “이미 일부 게임은 형태에 따라
이벤트 조기 종료를 결정했으며 관련
이벤트 노출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
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오딘: 발할라 라
이징 ▲가디언테일즈 ▲달빛조각사 등
에서 진행 중인 할로윈 이벤트를 조기
종료한다.

라인게임즈도 ▲언디셈버에서 할로
윈 이벤트에 대한 조기 종료를 알렸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내달 5일까지 국
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진행 중이던 할로윈 관련 활동을 중단하
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